

보도자료



보도일	2016. 10. 14(금)		
배포일	2016. 10. 14.(금)	홍보담당	기획처 홍보팀(02-880-5054)
담당부서	기념식: 사무국 총무과	문의	총무과(02-880-5091)

서울대학교 제70주년 개교기념식

- 서울대학교는 2016년 10월 14일(금) 오전 10시 30분 교수, 직원, 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관 중강당에서 제70주년 개교기념식을 개최하였다.
- 성낙인 총장은 기념식사에서 “지난 70년간 대한민국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근대적 학문의 척박했던 기반을 묵묵히 쉬지 않고 개척하며, 지성과 학문의 수호자로서 소임을 다하려 온 힘을 기울여왔고, 나라가 어려울때마다 시대의 양심을 대변하고, 지성의 빛으로 나아갈 길을 밝혀왔다” 고 전했다.
- 이어 성낙인 총장은 “지난 시간들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새로운 각오로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한다” 며 서울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학문연구기관으로서 충실할 것과 시대적 사명 완수, 선한 인재 양성 및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참된 지식공동체로의 도약, 새로운 학문의 기틀 마련, 인류에 실천 등을 제시했다.
- 이날 행사에서는 장기근속한 교수 및 직원, 그리고 봉사우수학생(관악봉사상, 사회봉사활동 체험수기) 등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제26회 자랑스러운 서울

대인' 으로 선정된 수상자에게 선정증서를 수여하였다. 축하 연사로는 LIN Jianhua 북경대 총장과 최경원 서울대 이사장, 서정화 서울대총동창회장이 초청되었다. 개교 70년을 맞아 '서울대학교 70년사' 를 발간하였으며, 이날 행사에서 노명호 편찬위원장(국사학과 교수)이 성낙인 총장에게 책자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 개교기념식에 전날인 13일(목) 오후 7시 30분 문화관 대강당에서는 '서울대학교 개교 70주년 아름다울 관악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서울대 학생들과 동문들이 함께 하는 축하공연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개교 70년의 의미를 한층 되새기고자 동문 연예인 등이 재능기부 성격으로 출연하고, 대학 인근 지역 주민들을 초청하였다.

□ 개교기념식 주요 식순(2016. 10. 14.)

- 국민의례
- 장기근속 교직원 및 봉사 우수학생 표창(관악봉사상, 사회봉사활동 체험수기)
- 「제26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발표
- 개교기념사(총장), 축하(이사장, 총동창회장), '서울대학교 70년사' 책자 전달

[붙임] 개교기념식사(총장)

축사(LIN Jianhua 북경대 총장, 최경원 이사장, 서정화 총동창회장)

【별첨1】총장 개교기념식사

존경하는 전임 총장님, 총동창회장님, 이사장님과 이사님, 내외 귀빈여러분, 서울대학교 가족과 동문 여러분,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성원해주시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랑스러운 개교 7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근대적 대학의 설립을 갈망해 온 반세기에 걸친 민족적 염원이 해방과 함께 드높아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1946년 개교 당시 초대 총장이 미국인이었다는 사실이 동시대의 불편한 상황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던 캠퍼스가 상징하듯이 1975년 관악에서 새로운 등지를 틀 때까지 우리는 그 많은 간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동안 서울대학교는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근대적 학문의 척박했던 기반을 묵묵히 쉬지 않고 개척하며, 지성과 학문의 수호자로서의 소임을 다하려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선배·동문들이 뿌린 희망의 씨앗은 오늘날 응비하는 서울대학교의 모습으로 그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운집한 우수한 인재들은 캠퍼스 곳곳에서 젊음을 불태우며 학문적 성과를 일구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졸업생들은 대한민국 공동체를 넘어 지구촌 곳곳에서 세계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 척박하던 시기에 우리의 선배들이 품었던 미래에의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울였던 혼신의 노력에 새삼 경탄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그 간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며, 최단기간에 가장 함축적으로 산업화를 이루고, 다시 한 단계 발전하여 민주화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지난 70년간 서울대학교의 빛나는 발전은 이러한 국가와 사회의 발전과 늘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시대의 양심을 대변하고, 지성의 빛(Veritas Lux Mea)으로 나아갈 길을 밝혀왔습니다. 해방 직후의 혼란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는 물론 한국경제의 개발연대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이 서울대학교를 곳곳이 지원해주시고 격려해주셨기에 오늘의 서울대학교가 있게 했다고 믿습니다.

서울대인 모두는 서울대학교와 우리나라의 이러한 성취에 무한한 자긍심을 느낍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배들을 자랑스러워하듯이 개교 100년, 200년을 맞아 우리의 후배들도 우리를 자랑스러워하려면,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서울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여정을 멈출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자기혁신의 노력으로 우리의 꿈과 열정을 끊임없이 실현해나가야 합니다.

서울대학교는 세계가 경탄할만한 진전된 위상을 일궈 왔지만, 우리는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룩한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과만으로는 세계적인 선진 대열에 진입하기 위한 장벽을 넘기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는 해외 명문대학들과 경쟁할 수 있는 교육과 연구의 내실을 갖춰, 대한민국이 선진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선배들이 이룩해 놓은 성과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대학교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였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개교 70주년을 축하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서울대학교의 지난 시간들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함께 보다 새로운 각오로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을 다시 한 번 되새겨봐야 합니다.

첫째, 서울대학교 본연의 학문연구기관으로서의 모습에 충실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선진국이 이룩해 놓은 학문의 도입(past follower)에 크게 의존했다면, 이제는 글로벌 사회에서 학문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한국적 문제와 해법을 통하여 세계를 진단하고 선도하는 독자적인 학문세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학문의 선진화는 창조적 연구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는 창조와 혁신을 위한 파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우리는 국립대학 법인체제의 발전기초를 튼튼히 하며 서울대학교에 부여된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의 교육 및 연구 역량은 제도적 자율성을 진전시킨 국립대학법인 체제의 성공적인 정착으로 그 토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대학인 서울대학교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립대학으로서의 위상과 좌표가 크게 흔들려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궁극적으로 대학의 자율과 자치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 그간 미흡했던 서울대법의 개정을 통해서 새로운 체제에 상응하는 정체성 확립이 필요 합니다. 서울대학교가 추구할 목표가 분명한 만큼, 그것을 향해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지배구조를 정립해야 합니다.

셋째, 밝은 영혼이 깃든 ‘선(善)한 인재’ 를 양성하며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참된 지식 공동체로 거듭나야 합니다. 배타적 개인주의나 집단적 이기주의를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모두가 다함께 발전하는 선한 공동체주의를 배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지나친 경쟁이 인간의 ‘선의지’ (善意志, guter Wille)를 침식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역동성과 다양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인간상에 기초한 인간의 존엄을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개인과 집단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며, 인류에 대한 배려와 이타심을 복원하는 선의지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공동선(共同善)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넷째, 서울대학교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학문의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족의 숙원인 통일 대업의 길에 서울대학교가 통일학(統一學) 연구의 메카가 되어야 합니다. 해방과 더불어 시작된 민족 분단의 아픈 역사가 어느덧 반세기를 훌쩍 넘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통일 한국의 미래와 평화 정착을 위해 통일학과 평화학 연구 분

야에서 괄목할만한 연구 성과를 축적해왔고, 이를 통해 하나 된 대한민국을 위한 인적·물적 교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또한 이제 대학교육도 이러닝(E-Learning) 시대에 무크(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를 구현하는 디지털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계적인 과학기술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강국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초학제적이고 탈경계적인 지식창출의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다섯째, 서울대학교는 지구촌 사회와 더불어 함께하는 인류애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는 1955년 미국의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통해 의학·행정학·보건학 등에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었고, 이제 그동안의 발전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며 세계 고등교육 발전과 전 지구적 글로벌 리더십 형성에 더욱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시아·아프리카에서 봉사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서울대인에게 큰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이 분들이야말로 서울대인이 지향해야 할 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ée)를 몸소 실천하는 분들입니다.

기회는 동시에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역사에 자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지난 70년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온 성취의 나날들이었다면, 앞으로의 70년은 ‘세계를 품고 미래로 나아가는’(Embrace the world, Pioneer the future) 서울대학교만의 새로운 도전의 역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이제부터 우리에게 새롭게 부여된 소명입니다.

오늘 우리의 다짐은 대학의 사명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지난 세월의 성취 위에서, 서울대학교는 이제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해야 합니다. 개인과 사회의 발전은 그 구성원들이 가진 ‘열정과 꿈의 현실화’였음을 우리 대학의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어 냈고, 이루어 낼 서울대학교의 자긍심이 세계 속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합시다.

저는 학교 운영을 책임지는 총장으로서 전환기의 서울대학교가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서울대학교 가족들과 함께 이런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가족들과 동문 여러분께서도 따듯한 격려와 현명한 비판을 아끼지 마시고,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이 길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0월 14일
서울대학교 총장 성낙인

【별첨2】 축사1 북경대 총장

Working Together to Create a Brighter Future

Dear President Sung Nak-in, Dear guests and friends,
Good Morning!

Today, it is my great honor to be present at the 70th Anniversary Ceremon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On behalf of the Peking University community, and with the distinguished guests from other AEARU member universities, I would like to extend my sincerest congratulations to Seoul National University on its 70th birthday! Since its foundation in 1946, Seoul National University has always maintained “the tradition of excellence, honoring public service, and pioneering knowledge.” In the past decades, it contributed numerous outstanding alumni who serve leading and important roles in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academic aspects to Korean society. Entering the 21st century,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iming to build a world-class university in pursuit of academic, has been striving to become from a premier national university, to a leader in Asia, and to a global power house. And it has turned itself as a community of knowledge and creativity, embracing the world and pioneering the future.

Peking University cherishes the long-time and fruitful friendship with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early as in 1993, the first year after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Republic of Korea diplomatic relations, our two institutions signed the first Memorandum of Understanding and have been promoting the higher education developments and exchanges ever since. As we enjoy the same intellectual vitality and the aspiration to make the world better, we cooperate in mutual and multi-lateral ways to serve the roles of research universities, and to contribute to the East Asia region as a whole. To name just a few:

Through Campus Asia, we are dedicated to educating a new generation of global leaders for East Asian countries, who have a deep understanding of humanities, culture, science and technology; who have a farsighted vision of the future and critical thinking abilities; and who are passionate, courageous, and tenacious.

Through the BESETOHA, AEARU and other university alliances, we for the

building of positive, cooperative, and comprehensive connections across the globe plays an important role in enhancing mutual trust, solving global issues, and advancing civilization.

We live in an unprecedented era of great opportunities and daunting challenges. The world is increasingly interconnected thanks to technological advancements, and yet, our problems are increasingly larger, more difficult to manage, and they threaten humanity's existence. On the occasi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on its 70th Anniversary, we congratulate the university's achievements to the society in the past 70 years, and we look forward to the more innovative and collaborative endeavors among all the universities, presenting or unable to present today, to harness the knowledge, technology and resources, to pioneer the future and create the history!

Last but not least, I wish Seoul National University greater success in the next decades to come! Thank you.

【별첨2】축사2 서울대 이사장

존경하는 서울대학교 가족 여러분!

서울대학교 설립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서울대학교는 해방, 6·25 남침, 산업화·민주화 과정이라는 역사적 격랑기를 헤쳐 나오면서 어려운 여건과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여 세계적인 학문의 요람으로서 확고한 위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국가 최고 인재의 양성과 학문적 성취를 통하여 국가발전의 견인차적 역할을 다 하여 왔습니다.

지난 2011년 12월 국립대학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여 백년대계를 위한 역동성과 다양성을 갖추기 위한 체제도 마련되었습니다. 명실공히 세계초일류대학의 반열에 오르기 위하여는 장기 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목표구축, 시의 적절한 탄력적 조직운용과 재정확충방안 확보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아울러 전통적인 학풍을 존중하면서도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과 창업활동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지식과 신산업 창출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70주년은 인생으로 따지면 황혼기라고 할 수 있는 ‘고희’에 해당하지만, 서울대학교로서는 황금기를 열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물론 여건과 전망이 그리 밝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뚜렷한 목표의식과 방향 감각을 가지고 합심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히 전진해 나간다면 세계적 명성을 갖춘 서울대학교의 모습이 자랑스럽게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70주년 고회를 축하하는 모임의 장(場)이 아니라 세계 초일류 대학으로서의 용비를 위한 우리 모두의 통합된 의지와 지속적 노력을 다짐하는 뜻깊은 서약의 장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서울대학교 건립 70주년을 거듭 축하드리며, 서울대학교 가족 모두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6. 10. 14.

서울대학교 이사장 최 경 원

【별첨4】축사3 총동창회장

존경하는 성낙인 총장님과 교직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참여하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신 선후배 동문 여러분과 외빈 여러분!

자랑스러운 모교의 통합개교 7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여러 동문들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우리 선조들은 일찍부터 국망과 분단이 야기한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가 발전하는 길은, 인성과 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 외에는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뜻과 힘을 모아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구한말 서울대학교의 전신에 해당하는 여러 관립학교들을 설립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서울대학교는 국가의 중추에서 민족의 미래를 개척해내는 지도자들을 배출해왔으며, 우리 민족은 중흥의 열망을 품고 모교를 지원해왔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엄혹한 현실 속에서도 민족의 지원에 힘입어 모교의 전신학교들은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 북한의 남침으로 대한민국이 존망의 위기에 처하고 서울대학교가 부산으로 피난했을 때조차 우리 국민들은 모교를 향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서울대학교의 역사는 국가의 중흥을 향한 민족의 열망에 힘입어 오늘까지 이어져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대인들은 그 역사 내내 국가의 중추에서 민족을 위해 봉사해왔습니다. 오늘 통합개교 70년의 역사를 기리는 것 또한 서울대인이 쌓아 온 가치를 천명하여 모교의 영예와 조국의 발전을 이어가기 위함입니다.

그 가치를 실천하는 모범으로서 올해도 제26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상 수상자가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수상자로는 정치와 문학이라는 전혀 다른 영역에서 모교의 이름을 빛내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김영삼 대통령을 비롯하여 지금은 고인이 되신 분들이 선정된 것을 보며, 새삼 이 자리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회합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과거에 이뤄낸 업적을 서로 축하하는 축제가 아닙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삶과 죽음을 바쳐 헌신한 이들을 기리며 작금의 난관을 헤쳐나갈 의지를 되새기는 제의(祭儀)의 자리입니다. 저 또한 과분한 추천으로 그 대열의 말석에 이름을 올리게 되어 감사하고도 두려울 따름입니다.

조국을 처음 일으켰던 힘이 바로 인재(人材)에 있었듯이, 오늘날 조국 중흥의 동력 또한 바로 인재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대학이 배출하는 인재들은 단군 이래 최대의 스펙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재들이 과연 사회 속에서 그만큼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사회에 대한 건전한 책임감과 자신을 향한 긍지 속에서 당당한가?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인 듯합니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많은 이들이 한국 교육의 방향을 수정해야할 것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의 최정점에 있는 서울대학교야말로 그러한 변화를 선도해야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인이 지향해야할 가치로서 지성, 겸손, 봉사를 제시하며 덕성과 능력을 갖춘 인재들을 양성해야함을 계속 말해왔습니다. 성낙인 총장님께서 취임 이후 줄곧 ‘창의적 역량과 굳건한 의지로 무장한 선한 인재’를 양성할 것을 천명하신 것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학교와 동문이 한 마음으로 모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때, 우리 후배들을 통해 조국의 중흥이 도래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지도자들에게 난관을 해결할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서울대인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 집단으로서 그 질문들에 답변해야 하며 그 답변을 실체화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줄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서울대인이 민족의 열망에 부응한 방법이며 국가의 존중 속에서 면면히 역사를 쌓아온 과정입니다. 서울대학교가 여전히 조국의 미래이며 서울대인이 여전히 민족의 희망임을 끊임없이 증명해냄으로써, 선배들이 쌓아올린 자랑스러운 역사를 자랑스럽게 계승해나갑시다.

오늘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과 모교의 앞날에 평안과 광영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서울大學校總同窓會 會長 徐廷和